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⑭ 안락행품 제14

섭수와 절복

첫번째 안락행인 신안락(身安樂), 즉 보살의 몸가짐에서는 어떤 일에도 참고 견디며, 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좌선(坐禪)에 정진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제13장 '권지품'과 비교하면 매우 소극적인 처신이라는 느낌이 든다. '권지품'에서는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다만 위 없는 깨달음만 아낀다(我不愛身命但惜無上道)"고 하며 인욕의 갑옷을 입고 〈법화경〉을 넓히는데 매진하는,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설해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결연한 모습은 없다. 이것은 다음의 구안락행(口安樂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천태는 "이 네 가지 안락행은 초심의 얕은 행을 하는 보살을 위해 설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삼론종의 길장(吉藏)도 똑같다. 즉 "초심의 보살이란 사실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을 전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국토에서 〈법화경〉의 홍통을 지원한 5백의 아라한, 8천의 성문들을 말한다. 〈법화경〉에 의해서 보살이 된 이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 위대한 보살로서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람들에게 사바세계에서의 경전 홍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설한 것이게 설하라는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 네번째의 안락행을 천태는 서원안락행(誓願安樂行)이라 이름한다. 그것은 홍통자에게 〈법화경〉에 의한 중생 제도의 서원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은 출·재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법화경〉 속으로 이끌어들이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설한다. 이상의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가 4안락행이다. 〈법화경〉은 "말법시대에 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몸과 마음가짐, 즉 마음을 닦음에 의해 그 설법에 과실이 없어, 출가수행자나 재가의 국왕을 비롯하여 브라흐만·거사 등 온갖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찬탄을 받는다. 만일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그를 지켜 줄 것이다"라고 설한다. 천태지의대사의 스승인 남악혜사(南嶽慧思: 515~577) 스님은 중국 남북조 말기에 강학(講學)불교로 변화한 당시의 불교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불교를 강하게 제창하였으니 그 때문에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의

혜사스님, 4안락행 수행 규범으로

日蓮 스님 "몸과 마음 '空'에 두라"

바로 안락행이다"라고 〈법화의소(法華義疏)〉 권10에서 말하고 있다.

두번째의 안락행이란, 천태가 구안락행(口安樂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름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언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홍통자가 〈법화경〉을 남에게 설하거나 경을 읽어줄 때에는 사람이나 경전에 대해 그 허물을 지적하거나, 다른 법사를 경멸하지 말며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얼굴로 설하라,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대승으로써 답하라 등과 같이 말이나 태도에 대해 설하고 있다. 세번째의 안락행은 몸(身)·입(口)에 이어서 의안락행(意安樂行)이라 부른다. 이것은 주로 홍통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으로서 타인에 대해 질투, 거짓말, 아첨, 경멸 등의 마음을 품지 말며 다른 수행자의 장단점을 거론치 말라, 희론(戲論)으로써 남과 다투지 말라고 설한다. 그리고 홍통자는 모든 사람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부처님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慈父)라는 생각을, 보살에 대해서는 큰 스승(大師)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한다. 이와 함께 법을 설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법화경〉을 보살의 실천 수행을 설한 경전으로 보고 특히 '안락행품'을 그 실천 불교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의 저서 〈법화경안락행의(法華經安樂行義)〉는 법화삼매(法華三昧)라는 〈법화경〉에 의거한 제법실상을 관(觀)하는 삼매행(三昧行)을 설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는 4안락행을 보살 수행의 규범으로 파악하고 이를 무상행(無相行)이라 이름했다. '무상행'이란, 항상 좌선을 행하고 일체법공(一切法空)의 입장에서 몸을 두게 하는 수행을 말한다. 그는 이 4안락행에 의거하면서 다시 독자적인 해석을 하여 적극적인 절복(折伏)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이 혜사 스님의 '법화삼매'는 제자인 지의 스님에게 이어져 그의 저서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에서는 이 4안락행이 그 행법으로서 채용되었다. 일본의 니찌렌(日蓮)은 이 14장의 4안락행을 절복, 즉 강제적으로 인도하는 행법이 아니라 섭수, 즉 온화한 태도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법의 악한 세상에서 널리 유통케 하는 것은 섭수가 아니라 절복역화(折伏逆化)에 있다"고 하여 섭수를 부정한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무심경계서 일 즐기는

산을 보며 잠시 놓았던 정신을 붙잡았을 때 금산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고 계셨다.

"작년에 요 아래 밭을 차밭으로 만들어 씨를 뿌렸더니 차씨가 나왔지. 아마 4~5년쯤 뒤에는 차를 딸 수 있을게야. 무안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심었어요. 농촌지도소 다니면서 거름이랑 씨를 타오고, 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아예 이곳 몽탄면 사람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해서 기계화를 할 생각이야. 사찰도 자립해야지, 신도들에게 언제까지 손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차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스님 뒤로 스님이 직접 쓰신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차' 하면 떠오르는 초의선사.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음일까.

"초의선사와 백파선사가 벌인 선 논쟁은 유명하지. 백파선사의 〈선문수경(禪門手經)〉이 단칼로 치는 힘이 있다면, 초의선사의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는 모난 것을 부드럽게 다듬는 미덕이 있어요. 두 선사의 제자들까지도 1세기에 걸쳐 서로 논쟁을 벌였으니, 참으로 대단하지. 논쟁이라는 것은 흔히 분열을 의미하지만, 두 선사의 논쟁은 서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지. 그런데 그 이후 무계무율(無戒無律)의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막행막식으로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 한 순간이라도 놓치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선인데…."

스님을 뵙자마자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고 여쭈었을 때 "그냥 살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스쳤다. 뜻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 선사들의 삶이야 그냥 살아도, 그게 어디 그냥 사는 것이던가.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달리 여쭐 길이 없었다.

"그래, 어디 요즘 즐거우신가?"

드디어 선문답이다. 큰스님들을 만나 뵈올 때마다 수미산처럼 다가왔던 알 수 없는 물음.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나. 그냥 즐겁게 사느냐고 물었는데…."

빙그레 웃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냥 즐기시게. 나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것을 그냥 즐기시게. 사람은 저 하기 좋은 일을 찾게 마련이거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성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걸 즐기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성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행복해야지. 그래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것이예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하게 되면 일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한 눈을 팔지 않고 온 사력을 다해 집중하면서 쥐구멍을 노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한다면 쥐 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바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일행삼매'는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어야 하지. 때가 되면 알이 부화하듯이,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즐거움이지."

◇금산스님은 일상(日常)에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요체라고 강조하셨다. 생활과 선의 경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우리의 삶·생활이 모두 禪

응용하면 즐겁고 편하게 돼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이다. 하지만 부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마저 놓아야만 가능한 일, 그것을 어찌 즐길 수 있다는 것일까.

"결과에 매달리면 그것은 벌써 실패한 것이야. 집착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무심(無心)해야 얻을 수 있어요. '무심'이란 무념무상과도 같은 말이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심'입니다. 무심해지면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즐길 줄 알아야해요. 선에 세간이 어디 있고, 출세간이 어디 있어. 세간에서도 무심을 얻으면 출세간이요, 출세간이라도 무심을 얻지 못하면 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선이고 공부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 삶과 생활에 선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선을 응용하면 그만큼 즐겁고 편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선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이 늘고 있는 요즘, 그런 불자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청했다.

"우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계율을 무시하 서 선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은 결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지. 재 자들에게는 '별시(別示)수행'이 가장 아요. 별시수행이란 대중수행을 말 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여럿이 함께 여 수행을 하면서 계율을 몸에 익히 록 해야 합니다. 대중이 곧 선지식이

"스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실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오랫동안 수행에 몰두해 오
"그냥 살고 있어."

노스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던 승 승 원명(圓明)이 소 한 마리가 아왔더니 실제로 산길에 소 발 했으며, 그의 제자 5백명도 따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평생 수행에만 몰두해온 금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승 3Km 정도. 그리 가파른 길은

가까이

금산스

금산스님은?

늘 미소띤 얼굴에 온화하고 부드 운 말투와 친절함으로 신도들에게 기가 높다. 하지만 공부하는 수좌들 게는 한여름에도 서릿발이 내릴 정 로 냉정하고 엄하다.

이곳에서 2년째 스님을 모시며

오는 사람 막지않고

하고 있는 증보스님은 "조금이라도 부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만 호되게 야단치시는게 아니다 "수행을 오래하신 분답게 공부를 시 시는데는 한 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 다"고 말했다.

목우암이 위치한 이곳 몽탄면 도 금산스님은 공부를 많이하고,

불교성지순례전문
(주)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Mahayana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 빌딩 4층
국외여행업 제21-448호 / 국내여행업 제21-138호

중국 불교 성지 기획행사

※지장도량 구화산/황산/남경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남경 — 구화산(육신보전, 백세궁, 천대 화성사, 저원사 등) — 황산 — 황산비경 — 남경 — 인천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족/중경/성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중경 — 대족(보정산석굴, 북산석굴 등)— 낙산(낙산대불, 대불사 등) — 아미산(금정, 보국사, 복호사, 만년사 등) — 성도 — 인천

※관음도량 보타낙가산/항주/영파/상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항주(영은사, 서호유람 등) — 영파(아육왕사, 천동사 등) — 보타산(보제사, 법우사, 조음동, 혜제사 등) — 낙가산(백팔나한탑 등) — 상해(임시정부청사, 옥불사 등) — 인천

※문수도량 오대산/대동/태원/북경 5일
▶주요순례지 : 인천 — 북경 — 대동(운강석굴 등) — 혼원(현공사) — 오대산(북대, 중대, 대라정사, 현통사, 탑원사 등) — 태원 — 북경 — 인천

불교 성지순례

인도 8대성지 10일
▶주요순례지 : 델리—녹야원—부다가야—왕사성—열반당—룸비니—카투만두—인천

인도 8대성지/네팔 13일
▶주요순례지 : 몸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아그라—불교성지—포카라—카투만두

미얀마 6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미얀마 7일
▶주요순례지 : 양곤(쉐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인천

스리랑카 6일
▶주요순례지 : 인천—콜롬보—플론나루와—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캔디—인천

인도네시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루부드로 사원 등)—발리—인천

캄보디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앙코르지역(앙코르왓, 앙코르톰, 톤레삽 등)—호치민—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2)—인천

민족의 영산 백두산 6일
▶주요순례지 :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3)—인천

비단길(실크로드)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서안—돈황(막고굴 등)—유원—투루판(천불동, 고창고성 등)—우루무치

구채구/황룡/성도 7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문수원 등)—황룡—구채구—성도—대족—중경—인천

계림/장가계 5일
▶주요순례지 : 인천—계림(이강유람, 관암동굴 등) — 장가계(천자산, 십리화랑 등) — 광주 — 인천

티벳/성도/낙산 8일
▶주요순례지 : 인천—성도—라싸—시가체—장체—라싸(포탈랍궁 등)—성도—낙산—인천

대만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타이페이—대중불광사—화련—타이페이—인천

세계 문화탐방

중국 운남성 5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곤명(원통사, 곤명호, 민속촌 등)

중국 운남성/대리/여강 8일
▶주요순례지 :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대리—여강—곤명(곤명호, 민속촌)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오사카(오사카성 등)—교토—나라—벳부(온천)—인천

일본 핵심일주 5일
▶주요순례지 : 오사카—교토—신간선—하코네온천—동경—닛코—후쿠시마 또는 니가타—인천

일본 북해도 4일
▶주요순례지 : 인천—치토세—오타루—죠잔케이—삿뽀르—도야—노보리벳츠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하노이—하롱베이—땀꼭—하노이—인천

남부 베트남 5일
▶주요순례지 : 인천—호치민—메콩델타—구찌—붕타우—호치민—인천

유럽4개국 8일(영/프/스/이)
▶주요순례지 : 인천—로마—피렌체—베니스—밀라노—제네바—파리—인천

지중해 3개국+룩소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카이로—아테네—이스탄불—카이로—룩소—카이로—인천

동유럽+서유럽 완전일주 15일
▶주요순례지 :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하—비엔나—짤스부르그—로마—피사—밀라노—파리—런던—인천

미동부+캐나다 퀘백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오—퀘백—브리지포트—뉴욕—인천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주요순례지 : 인천—시드니—크라이스처치—퀸스타운—오클랜드—로토루와—인천

캐나다 동서부 항공일주 8일
▶주요순례지 : 인천—벤쿠버—빅토리아—캘거리—밴프—나이아가라—토론토—인천

중남미 5개국 17일
▶주요순례지 : 인천—멕시코시티—리오데자네이로—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리마—꾸스코—인천

여행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상호와 가격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십니까?
"정성이 듬뿍 깃든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